

전기료 인상에 자칫값 상승 조짐...시름 깊어지는 건설업계

올해 수도권 레미콘 가격 10.4% ↑
전기료 올라 시멘트값 인상 조짐
건설공사비지수 1년새 7.2% 올라
‘공사비 증액’ 갈등 사업장 늘 듯

전기료 인상에 따라 건설 원자재 가격도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레미콘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 시멘트 업체들도 추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경우 공사비 증액 문

제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체들과 건설업계는 올해 수도권 레미콘 가격을 현재 1㎡(루베)당 8만300원에서 8만8700원으로 10.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주요 시멘트사들이 지난해 11월 시멘트 가격을 1톤(t)당 9만2400원에서 10만5400원으로 15% 가량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2022년 2월 기준 1t당 7만8800원에서 9만2400원으로 올랐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오르면서 1t당 10만원(10만5400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기료가 또 한 차례 인상되면서 시멘트 업체들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 인상안에 원가 상승 요인 중 일부만 반영됐고, 전기료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했다. 전력다소비 업종인 시멘트 업계는 전기료가 오르면 만큼 제조원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도 전기료가 올랐는데 새해 또 한 번 오르면서 원가 상승 부담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1월 기준 148.70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3.6% 상승했다. 이 지수는 자재, 노동, 장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다. 건설공사비지수가 1년 새 7.2% 오르는 동안 분양가도 10%가량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546만5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0.91% 올랐고,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9.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업장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공사 금액으로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해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레미안빌에 일리 재건축 조합과 공사비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고, 마포구 공덕1구역과 강서구 방화6구역 등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사업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 자칫값이나 인건비 등도 계속 올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주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칼 갈았다”...BMW, 올해 신차 9종 쏟아낸다

BMW그룹코리아(이하 BMW)가 올해 한국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신차를 내놓는다. 지난 7년간 라이벌 메르세데스-벤츠(벤츠)에 빼졌던 수입차 1위 타이틀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다. 18일 BMW는 ▲XM ▲M2 ▲M3 투어링 ▲X1 ▲iX1 ▲Z4 ▲5시리즈 ▲X5 ▲X6까지 9개 차종을 출시한다. 신차, 완전변경 차량, 부분변경 차량이 각각 3대씩 시판될 예정이다. 미니 브랜드가 올해 내놓을 ‘MINI 일렉트릭 레슬루트 에디션’을 합하면 무려 10개 차종을 올해 새로 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BMW의 신차 출시 규모는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영원한 라이벌’ 벤츠는 올해 ▲럭셔리 전기 SUV ‘더 뉴 EQS SUV(The new EQS SUV)’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The new Mercedes-AMG SL)’ 2종을, ‘독일 3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아우디는 ▲더 뉴 아우디 S8 PI ▲더 뉴 아우디 RS 3 등 4종의 신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준대형 SUV 투어레만이 출시 확정된 상황이고, 볼보코리아의 경우 신차 출시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격적인 신차 출시 배경엔 BMW의 한국 시

장 1위 탈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신차등록대수에서 벤츠에 앞섰던 BMW는 마지막 영업 달이었던 12월 벤츠에 역전 당하며 1위 탈환에 실패했다. 벤츠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수입차 등록대수 1위 타이틀을 차지했다. 올해 출시될 신차 중에선 우선 상반기 출시되는 3세대 X1과 순수 전기차 iX1이 눈에 띈다. 뉴 X1은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내연기관 엔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전기 드라이브 모델이 모두 하나의 조립 라인에서 만들 예정이다. 특히 BMW 엔트리급 모델인 3세대 뉴 X1은 이전 세대보다 더 존재감 있는 디자인,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최첨단 디지털 기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BMW는 소비자들에게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독립적인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BMW 뉴 XM도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BMW 뉴 XM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BMW M이 1978년 출시한 스포츠 쿠페 M1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M 전용 모델이다. 하반기엔 BMW 5시리즈의 8세대 완전변경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다. 5시리즈는 명실상부한 BMW의 ‘베스트셀러’다. 지난해 국내에서 2만1512대 판매됐다. 김재환기자

이마트, 오늘부터 설 명절 먹거리 최대 40% 할인 판매

이마트가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설날 온가족 먹거리’ 행사를 열고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이른 추석 명절로 인해 재고 물량이 증가해 시세가 낮아진 사과, 배 등 제수용 과일들을 지난해 설보다 저렴하게 준비했다. 주요 상품으로는 ‘나주 신고배(3kg, 박스)’를 지난 설 판매가인 1만9900원 대비 20% 가량 저렴한 1만5900원, ‘제수용 사과(특대, 3입)’의 경우 지난 설 판매가 1만4800원 대비 13.5% 저렴한 1만2800원에 판매한다. 또 이마트는 해양수산부와 연계해 주요 수산물들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 제철 맞은 ‘남해안 봉지굴(250g, 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된 5988원에 판매하며, ‘온가족 손질 바다장어(700g, 박스, 국산)’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된 2만98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손질 바다장어 상품의 경우 지난해 설 행사 가격보다 25%가량 저렴하다. 이 밖에도 ‘브랜드 삼겹살·목심(냉장, 국내산)’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델리 코너인 ‘스시-e 패밀리 모듬초밥(30입)’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2만1584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1주일간 할인 행사 열어



기간 한정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킹크랩’을 100g당 7980원에 판매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프라이드·와규 윗등심살(냉장, 미국산·호주산)’을 20% 할인 판매한다. 오유나기자

숲속 별장생활 재현 ‘레고 오두막 세트’...내달 4일 출시



레고그룹은 ‘레고 아이디어 A자형 오두막’ 세트를 내달 4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총 2082개 브릭으로 숲속 별

아이디어 플랫폼 출품...제품화 결정

장에서 보내는 하루를 재현했다. 이탈리아의 레고 팬 안드레아 라탄지오가 레고 아이디어 플랫폼에 출품한 후 1만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제품화가 결정됐다. A자형 오두막의 가파른 지붕을 분리하면 2층 다락방과 아래층의 거실·서재·주방을 구성할 수 있다. 오두막 내부에서는 서재에 앉아 타자기로 소설을 집필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등 다양한 소일거리를 즐길 수 있다. 1층 데크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색색의 조립식

단풍나무가 우거진 풍경이 펼쳐진다. 숲속 일상을 표현하기 위한 미니피겨 4개와 다람쥐, 수달, 개구리, 새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 피겨 11개도 포함됐다. 이번 세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황체 나방 2마리도 있다. 완성품 크기는 높이 24cm, 가로 21cm, 세로 22cm다. 내달 4일 온·오프라인 공식 레고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된다. 레고 무료 VIP 멤버십 회원은 내달 1일부터 공식 온라인몰에서 선구매가 가능하다. 서선욱기자

설빙, 까망찰떡브레드·파배기 등 신메뉴 출시



설빙이 추억의 간식 라인업을 넓히며 신제품 선보인다.

설빙은 ‘까망찰떡브레드’와 ‘파배기 3종(오리지널·인절미·초코)’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까망찰떡브레드는 크림을 속에 찰떡을 넣은 메뉴다. 파배기 3종은 설탕과 시나몬가루를 올린 오리지널 파배기, 인절미가루를 곁들인 인절미 파배기, 초코소스와 이탈리아 초콜릿 슬라이스를 올린 초코 파배기 등으로 구성했다. 설빙은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은 일러스트 크리에이터 ‘영이의 숲’과 협업해 캐릭터 ‘꽃가’를 활용한 ‘꽃가 붐어빵 세트’를 함께 선보인다. 설빙은 꽃가와 두번째 협업을 기념해 관련 프로모션과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꽃가 붐어빵 세트는 ‘한입속 붐어빵’의 세 가지(딸·슈크림·피자)맛에 꽃가 킴을 각각 세트 구성했다. 해당 세트를 주문했을 때 붐어빵 먹는 꽃가 킴을 제공한다. 뉴스

에스트라, ‘에이시카365 수분 진정 결 토너’

아모레퍼시픽의 메디 뷰티 브랜드 에스트라는 ‘에이시카365 수분 진정 결 토너’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민감 피부를 위한 수분 진정 토너로, 화장솜으로 닦아내며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 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는 저자극 결 케어 제품이다. ‘에이시카365 수분 진정 결 토너’는 피부 결을 정돈해주는 ‘PHA3%’ 성분에 시카를 더해 화장솜으로 인한 자극 없이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관리해준다. 화장솜으로 닦아내듯 사용하는 이른바 ‘닦토’ 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피부 속 수분이 더 채워진다. 민감한 피부를 위한 이번 신제품에는 피부 진정 특화 성분인 ‘시카 BPMTM’이 함유되었

다. 시카 BPMTM은 베타글루칸, 피토스테롤, 마테카소사이드를 함유한 에스트라의 핵심 진정 성분으로, 제품 사용 직후 36%의 진정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토너로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는 저자극 포뮬러로 구성했다. 4가지 피부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과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매일 사용할 수 있다. 에스트라의 ‘에이시카365 수분 진정 결 토너’는 현재 에스트라 공식 온라인몰, 아모레몰, 올리브영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슬비기자

